

국내총생산액 5.3% 성장의 추진 주력은 ?

데이터로 보는 1분기 경제의 하이라이트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총생산액은 2조 9억 6,299만원, 불변가격으로 계산하면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그 배후에 어떤 주요 경제 요소가 이를 추진했는가?

채산의 각도에서 볼 때 주로 공업이 반등하고 봉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공동으로 성장을 이끌었다.

1분기 공업증가치는 동기 대비 6.1% 성장하여 지난해 동기와 4분기보다 모두 뚜렷이 반등했다. 초보적으로 추산하면 국내총생산액 성장에 대한 기여률은 37.3%로 거의 2%의 성장을 견인했다. 전국 규모이상 공업증가치는 동기 대비 6.1% 늘어났고 첨

단기술제조업의 증가는 7.5% 성장하여 지난해 4분기보다 2.6% 빨라졌다. 봉사업에서 1분기에 비교적 좋은 발전 추세를 유지하여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률이 55.7%였다. 산업과 봉사업 두 방면의 기여도는 90%를 넘는다.

1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는 73.7%. 소비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엔진'으로 되었다. 실물 소비가 총체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1분기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12조원을 돌파해 동기 대비 4.7% 늘어났다. 온라인 소비가 강세를 보였는데 1분기 실물상품의 온라인 소매액은

동기 대비 11.6% 성장, 일부 신기술의 추동하에 온라인 판매 신모식이 부단히 혁신되면서 판매 기록을 부단히 경신했다. 주민의 업그레이드 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소매의 각도에서 볼 때 체육오락 용품, 통신기자재의 판매는 동기 대비 성장 속도가 모두 두자리수 이상을 유지, 주민 립장에서도 교통통신 지출, 교육문화오락 지출은 모두 두자리수로 증가했다.

봉사업의 증가세가 비교적 좋다. 현대봉사업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해 1분기 봉사업 증가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정보 전

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봉사업, 임대 및 비즈니스 봉사업, 교통 운수, 숙박 및 료식업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봉사업 소매액은 전년 대비 10.0% 증가했다. 주민 봉사업 소비지출은 43.3%를 차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높아졌다.

한편 고정자산 투자는 1분기에 동기 대비 4.5% 증가, 실제로는 5.9% 증가되었다. 상품 소매액과 봉사업 소매액을 합치면 4.7%, 수출은 5% 증가했는데 3대 주요 지표는 국내총생산액의 성장과 맞물린다.

/ 중앙 TV 방송넷

우리 나라 발명특허 산업화를 39.6%에 달해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발표한 <2023년 중국특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 나라 발명특허 산업화율은 39.6%에 달해 전년 대비 2.9% 포인트 늘어나 5년 연속 안정적으로 제고되었다.

혁신주체로서의 기업의 발명특허 산업화율은 51.3%에 달해 전년 대비 3.2% 높아졌다. 그중 소기업, 령세기업의 발명특허 산업화율은 각각 53.9%, 33.8%로 전년 대비 8.6%, 11/8% 높아졌다.

발명특허 산업화 수익이 안정적으로 증가되었다. 2023년 기업의 산업화를 실현한 발명특허 평균 수익은 829만 6,000원 / 건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자주적 브랜드 제품에 사용되는 발명특허 산업화 평균 수익은 1,067만 1,000원 / 건으로 특허 및 브랜드의 종합 운용 효익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산학연 협력이 특허 전환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지난해 우리 나라 기업의 산학연 발명특허(특허권자에 기업, 대학교 또는 과학연구단위의 발명특허가 동시에 포함됨)의 산업화 평균 수익은 1,033만 2,000원 / 건에 달해 기업의 발명특허 산업화 평균 수익보다 24.5% 높았다. 기업이 산학연 협력을 통해 관련기술 또는 핵심부품 난관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비율은 56.1%로 가장 높아 산학연 협력이 관련적 핵심기술 난관들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산학연 협력에서 뚜렷한 혁신을 이룩했음을 보여주었다.

/ 인민넷

우리 나라 인공지능기업 4,500 개 초과



인공지능은 새로운 라운드의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을 이끄는 전략적 기술로서 신형 공업화의 중요한 추진력으로 된다. 일전 공업정보화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나라 인공지능기업수가 이미 4,500 개를 초과했다.

다음 단계에는 계산법, 계산력 등 큰 모형 기반기술(底层技术)을 둘러싸고 지능집, 큰 모형의 계산법, 틀 등 기초적인 관건 핵심기술과 제품의 돌파를 다그쳐 추진하고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계산력 공급 운영 관리 능력을 제고하며 생태형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통용 보편적 큰 모형을 다그쳐 구축하고

제조업 장면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큰 모형을 육성하며 높은 공업가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업 산업의 데이터 요소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공업정보화부는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고 동력이 강하며 디지털화 기초가 좋은 중점 업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능력을 부여하는 신형 공업화 전문행동을 전개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제조업 전 과정 융합 응용을 심화하고 연구개발, 중간시험, 생산, 봉사업, 관리 등 단계의 지능화 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중앙 TV 방송넷

우리 나라 채굴 가능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 모두 증가



개평유전에서 작업중인 '심란탐색'호 시추 플랫폼

지난해말 기준 기술적으로 채굴 가능한 우리 나라의 석유 매장량과 천연가스 매장량은 각각 38.5억톤, 66834.7억립방미터를 기록, 전년 대비 각각 1.0%, 1.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자원자원공보와 전국 석유, 가스 매장량 통계 속보 데이터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중국 석유·가스 매장량이 신규 확인되었다.

석유의 신규 확인 지질 매장량은 4년 연속 12억톤 이상의 안정세를 보였다. 천연가스, 셰일가스, 석탄층매탄가스(CBM) 통합 신규 확인 지질 매장량은 5년 연속 1.2만억립방미터 이상을 유지했다.

최근 남해해역 개평 11-4 유전에서 대규모 매장량이 신규 확인되어 우리 나라 최초 대형 심해유전이 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 신화넷

처음 자주적으로 연구제작한 초심수대양시추선 '드림'호

9 대 실험실 선적, 백대 넘는 설비 장치



광동성 광주시 남사구 주강구에서 '드림'호 대양시추선이 한창 설비 조정과 내장실험실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연자원부 중국지질조사국의 소식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자주적으로 연구제작한 초심수대양시추선 '드림'(梦想)호가 이미 시험조정과 내장단계에 들어섰으며 올해내에 전면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드림'호는 총 적재 톤수가 3만 3,000으로 180명의 선원을 태울 경

우 120일 연속 해상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항속거리는 1만 5,000해리에 달한다. 선상에는 120만미터의 케이블을 부설, 정보화 기술을 전면적으로 포괄하여 선내 지능 협동을 실현했다. 이는 전세계 해역의 무한 항행 구역 능력을 구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1만 1,000미터의 시추 능력을 갖춘 과학고찰 시추선이기도 한바 주로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국제 대양 과학시추 임무를 맡게 된다.

'드림'호의 선적실험실은 총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초과, 기초지질, 미생물, 해양과학 등 9대 실험실을 포함하며 각종 정밀실험기구를 150대(세트) 이상 조립 장치하여 현재 이미 물, 전기, 가스, 바람 등 12개 시스템의 설치 작업을 완성, 곧 실험기구의 설치를 진행하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대양시추선 '드림'호는 올해 하반기 시험운항 검증을 마치고 연말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자연자원부 중국지질조사국 '드림'호지휘부의 소개에 따르면 '드림'호는 '해양과학이동실험실'이라고도 하는데 각 해양 영역에 필요한 수치는 이를 통해 분석된다. 그 수치의 원천은 시추기를 리용하여 암석을 채취해 선상 실험실로 보내고 과학자들이 지휘실에서 함께 데이터를 분석해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서 온다.

/ 중앙 TV 방송넷

1분기 수리건설 투자, 전년 동기 대비 93.3% 증가

1분기 수리 기초시설 건설 진전과 성과 소식발표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리건설 략작 투자 규모는 7,78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3.3% 증가, 이미 1,933억원을 완성해 동기 대비 4.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동기의 최고 기록으로 된다.

전국적으로 2만 3,500개의 수리 프로젝트가 시행됐으며 4.7만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건설중이다. 중대 수리공사 건설이 가속화된다. 올해 전국적으로 이미 장강 간류 동등하 구간 정비, 강서성 략평 수리중추, 황하 념 하자치구 구간 정비, 북경 영정하로 3

구간 종합 제고, 섬서성 장가요척저수지, 강서성 협강관개구, 호남 남매산관개구 등 13개 중대한 수리공사를 착공했다. 남수북조 중선 '인강보환' 수원 프로젝트, 회하 임해수로 2기 등 일련의 국가 수망 중대 공사가 다 그쳐 실시되고 있다.

수리사업 착공 건수가 많고 고용 흡수 능력이 몰출하다. 대규모 수리건설이 직접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1분기 수리사업 시공 고용 인력은 7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 인민일보

‘2024 중관촌포럼’… AI·생명과학 등 최첨단 분야에 초점



'2024 중관촌포럼'이 25일 북경에서 개막되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에서 생명과학, 신소재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혁신, 더욱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자'를 주제로 한 올해 년례회의는 회의, 기술거래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6G, 블록체인(데이터 분산 처리기술)을 비롯한 기타 관련기술 분야에서 약 120차례의 활동이 계획되었다.

최첨단 분야 대회는 75개 국가(지역)에서 3,100개 이상을 출품했으며 기술거래부분에서는 40개 이상 국가(지역)의 6,000여개 프로젝트를 유

치했다

약 100개 국가(지역)에서 이번 포럼에 참가했다. 그중 해외 발표자의 절반 이상이 개방과 혁신적 협력을 지향하는 중국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지난 2007년 '혁신과 발전'을 연구 주제로 시작된 중관촌포럼은 수년간 국가 차원의 혁신 플랫폼이자 국제 포럼으로 자리잡았다.

중관촌에는 1만 7,000개 이상의 고신기술기업이 입주해있다. 중관촌은 중국 최초의 국가고신기술산업개발구이자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알려졌다.

/ 신화넷